

광주시 권력 이양기 공직기강 바로잡기

10일까지 기강 해이 등 특별감찰 동료끼리 '제 식구 감싸기' 우려도 일부 코로나 감염 가짜 병가 의혹 시·산하기관 전수조사 나서야

광주시가 민선 7-8기 '지방권력 이양기'를 틈타 느슨해진 공직기강 바로잡기에 나섰다. 시는 특히 출·퇴근 시간 위반 등 복무위반 행위와 갑질, 금품·향응수수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시청과 시 산하기관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코로나19 가짜 감염을 악용한 무단 휴가 행위, 직원 갑질, 업체와의 유착 등 각종 나쁜 행위를 적발할 지는 의문이다. 공직사회 감찰업무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형식적이면서도 의례적인 '제 식구 감싸기식' 운영적 감찰 풍토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시 산하 기관에서 제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가짜 병가 의혹' 해소를 위한 관련자 전수조사 등 강도 높은 감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을 맞아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감찰 사항은 새로운 복무관리 시스템 도입에 따른 초과근무 대리·허위 입력, 출·퇴근시간 위반, 공가·특별휴가 허위 사용 등 복무위반 행위다. 시는 또 갑질, 직무해태 등 건전한 공직분위기 저해와 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 등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는 광주시와 산하 기관에서 민선 7-8기 이양기를 틈타 시청 직원간 폭행사건부터 '코로나19 감염'을 악용한 무단 휴가, 직원에게 막말 퍼붓는 간부 공무원, 민간업체와 유착하는 공무원 등 기강해이 사례가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광주일보 2022년 6월 14일자 1면>

광주시는 일단 내부 감찰을 강화하고 있다는 입

장이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들어 민간업체 관계자들과 수시로 사적인 만남을 가져온 일부 기술직 간부는 민선 8기 초반 주요 요직을 차지하기 위해 외부 업체는 물론 광주시 업무 관련 회사에 몸담고 있는 같은 직렬 퇴직간부까지 동원해 인사 로비에 나서고 있다는 말까지 흘러 나온다.

광주시의 한 공무원은 "직원에게 막말하고 갑질하는 간부는 아직도 아무일 없다는 듯 출퇴근하고 있고, 일부 시 산하 기관의 복무위반 행위 등 기강해이 사례도 여전하다. 특히 직원을 사이에선 특정간부가 인사 로비에 한창이라는 말도 파다하다"면서 "시정직원이 동료직원을 감찰하는 현 시스템만으로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갑재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별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청렴하고 부패없는 시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개방해주세요

시 소방안전본부, 8월까지 출입문 폐쇄·잠금 특별점검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8월까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폐쇄한 다중이용시설 출입구 등 비상구 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관내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출입문 폐쇄·잠금 등 행위를 불시에 점검하고 비상구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등 관행적인 불량사항을 확인해 시정 명령을 한다.

또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설비 전원 차단, 옥내소화전 알 물건 적치 등 소방시설 차단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소방관서장 주도 하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화재안전간담회 전담반을 구성해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안내, 관계인 화재안전관리 및 피난시설 사용법 교육, 피난동선 확인, 소방활동 취약요인을 분석한다.

이 밖에도 소방차량 위치 선정 및 소화활동설비 활용 화재진압 훈련을 하는 등 대상물과 지속적인 합동 소방훈련으로 최단 거리 출동로를 확보하고 화재 초기부터 관내 소방력을 총동원해 초기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안전본부 이남수 방호예방과장은 "비상구는 화재발생 시 우리에게 생명의 문과도 같다"며 "불 나면 대피가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구 개방 등 자율안전관리 문화 조성에 협조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공공건축물 그린뉴딜 사업 확대

에너지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제로에너지 1등급 건축물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강화

광주시가 그린뉴딜 실현을 위한 공공건축물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3일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그린뉴딜 정책을 적용한 '에너지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시행 중이다.

2023년 12월까지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조성 예정인 에너지융복합단지 지정 후 기술사업화 과정을 아우른 역할을 맡게 된다.

종합건설본부는 특히 신재생에너지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BIPV), 태양광패널(PV) 등을 설치하는 등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을 달성

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1등급을 취득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건축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 지난해 발주한 사업 중 BF 관련 사업은 설계단계 예비인증 5건, 사용승인 단계 본인증 3건 등이며, 모두 우수등급을 취득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은 장애의 유무, 연령 등에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하도록 설계된 건축물에 대한 평가하는 인증 제도다.

시 종합건설본부 최원석 건축설비부장은 "광주시는 온도 1도 낮추기에 앞장서는 등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관리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건축물 건립 시 제로에너지 인증은 물론 녹색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범죄예방 환경 설계 등 지속가능한 공공건축물 건립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도시철도 2호선, 상무대로 공사 착수

상무역사거리~운천저수지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지난 2일부터 도시철도2호선상무대로(상무역사거리-운천저수지 입구) 공사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국제빌딩에서 상무역 6번 출구방향 120m 구간 전체 9개 차로 중 동쪽에서 서쪽 방향 3개 차로와 하이마트 삼거리에서 운천저수지 입구 방향 100m 구간 서쪽에서 동쪽 방향 3개 차로를 점용해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필요한 가시설과 복공판을 설치하게 된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유동 인구가 많은 상무대로 공사 중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차량유도 안내 표지판과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안내 요원을 배치한다.

또 대시민 홍보를 위해 공사구간 진입 전 인근 교차로에 공사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교통방송을 통한 안내와 함께 시 홈페이지에 공사구간 등 현황 안내와 월별 사전예고에도 나선다.

백남인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부장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상무대로 지하철 공사로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시민들께서는 가급적 우회 도로를 이용하고 변경된 차로 표시에 유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윤진보)와 광주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허우희)는 최근 광주시 서구 마루동 공사 본사에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고 도시철도 이용객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 검진 및 상담을 했다.

광주도시철도, 철도안전관리 4년연속 '우수'

국토교통부 평가... 전 분야 우수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국 22개 철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철도운영자의 안전관리 활동 및 성과, 경영진부터 현장근무자까지 모든 구성원의 철도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수준 등을 매년

평가해 철도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다.

공사는 안전투자실적, 철도사고·안전사고·운영 장애 등 사고지표, 안전성숙도 등 모든 평가 분야에서 고르게 고득점을 받았다. 특히 CEO의 강력한 안전 경영 추진 의지, 현장형 교육훈련,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철저한 적격성 관리, 열차운영계획 수립, 유지관리 이행계획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는 게 도시철도공사의 설명이다.

공사는 올해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점

검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역사 진입로 열선 시스템, 승강기 안전장치 업그레이드 등 현장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사고 예방 관리로 시민 안전을 대폭 강화한다. 또 AI중심도시 광주를 선도하는 스마트 안전관리, 국제 규격의 안전품질 관리 인증 유지 등 안전 활동에도 나선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윤진보 사장은 "안전을 경영 중심에 두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최고의 안전관리 수준을 유지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상무지구(상가매매)

1) 감정가 (시세) **9억**
매매가 **7억** (용 4억가)

2) 월수익 **350만** (보 4천)
3) 평수 140평, (전용 100평)

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시비없음,시설완비)

당진(신축)원룸매매

월수익 **750만**
연수익 **9천만**
매매**14억5천**(용7억)

▶ 임대관리 직접해드릴
10년간 임대걱정 없음.

대산항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엘지정유,입주및공사시작
엘리베이터있음, 주인세대있음.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

-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
-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광주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주 광산구(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치평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전남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장성군 서삼면(농지)▶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시외	다양군 월산면(임야)▶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감정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

010-6670-9800 (062-382-5500)